



미래세대와 지역의 참여로 만드는
『한국하천환경교육망』을 제안하며



이강평 | 환경교육해설지원센터
대표 (techcross@hanmail.net)

“물”생명, 삶 그리고 희망

오늘날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일상사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환경 파괴와 관련하여 인간 행위의 결과가 오늘날 인류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지속성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심각한 '생존에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인간의 삶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되었는데, 그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인간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이제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환경을 위협하는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점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은 인류사회의 절대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문제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또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회복이 가능하거나 아예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환경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미래 세대라는 점에서 보면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성인보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더욱 중요하다.

미래세대(아동과 청소년)는 환경문제의 최대의 피해자이며 동시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

도록 하는 현실적인 책무를 지고 있는 존재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 시절은 인생을 지배할 환경적 생활태도를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아동과 청소년은 환경과 생태계의 보호에 있으며, 미래세대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단지 교육의 대상이 아닌 다음 세대의 주인으로서 함께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하여야 할 주제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 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시대적, 환경적 여건에 따라 또 여러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슈미더는 환경 교육의 목적을 '환경과 그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자각하고 관심을 가지며 현존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과 새로운 문제점의 예방을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일할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태도와 동기,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이라고 하였으며, 트루스트와 엘트만은 '능동적 환경 지향의 시민을 길러내는 것'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환경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비람직한 상태로 환경을 개선·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목표는 지역 환경의 문제인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참여로 이어질 때 달성될 수 있다.

통합적 『환경교육망』 사업의 필요성

첫째, 지역의 미래세대와 시민들에게 '환경적 감수성'과 '생태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현재 환경관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수·학습법, 운영들은 인지적 영역(지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 자체를 친근하게 공유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 미래세대와 시민들에 주변환경(자연·인공·사회환경·인문환경 등)의 체험을 통해 '자기 환경화'할 수 있는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미래세대와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통합적(자연·인공·기술적·사회적(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문화·역사적, 도덕적, 미학적)) 접근과 균형적인 조망의 기회가 필요하다. '환경'하면 수질/대기/폐기물/토양/생태 등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전달과 장의 제공이 아니라 삶과 주변의 다양한 환경요소 간의 연결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과거 삶의 연장선에 있다. 주변의 다양한 환경과 호흡하며 삶의 지혜를 누려왔던 선조들의 여유와 신명 속에 자연친화적 요소들을 스스로 체험으로 느끼고 그것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여 그 뿌리를 바탕으로 그들의 환경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라진 공동체 의식을 미래세대와 시민들 스스로 소중히 여기고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풍토와 사회구조는 미래세대와 시민들에게 경쟁 아니면 포기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아가고 있으며 또래끼리 나누어야 할 건강한 집단경험의 기회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들에게 자신의 삶과 관련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나 공동체의 형성을 강요할 수도 없고, 막연하게 기대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 함께 나누고 만들어 가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인식케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환경'에 대한 불평등은 또 다른 환경문제이다. 현재 '환경'과 관련하여 계층별/지역별로, 자원의 이용 기회와 혜택, 환경인식을 위한 교육 기회, 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사회적 관심 및 사회비용의 투자 등에 있어서 불평등과 불균형적인 면이 심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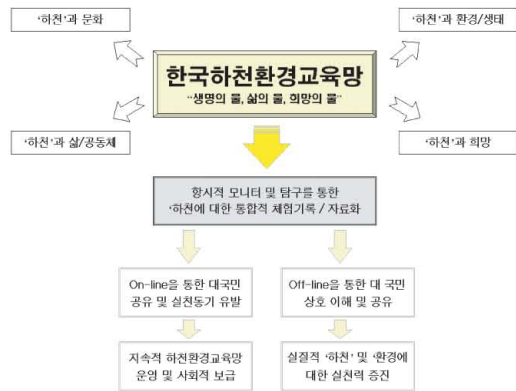
환경문제의 해결과 극복의 궁극적 목적인 '인간과 환경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 있다고 할 때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한 접근의 기회, 인식의 기회, 행동과 책임의 기회에 있어 계층과 지역별 괴리는 환경문제의 사회적

약순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경복지'적 관점에서의 인식의 전환과 기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하천환경교육망』을 통해 각 하천 유역의 학교와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환경교육 Network를 구축하여 이들에게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기회 제공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일선 학교 교사 및 환경단체, 사회단체의 환경교육 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각 하천 수계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실질적 기초 Data 확보를 통한 현장적용 가능한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각 지역의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와 기술과 다양한 접근법을 공유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 있는 참여자들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그들이 조사한 결과의 가치를 평가받기도 하여,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그들의 하천 유역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들이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한국하천환경교육망』의 기본 방향



『한국하천환경교육망』은 참여 주체들이 각 하천별 거점을 맡아 하천의 다양한 모습에 관한 탐구 및 모니터 활동, 참여 주체들에게 다양한 환경체험 프로그램 지원, 활동결과와 사회적 공유(On-line / Off-line), 이를 통한 환경정책의 반영 및 대국민 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Off-line에서 하천에 대해 청소년 및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근 가능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하천에 대한 인식, 감수성 증진, 실천동기부여가 용이하기 위한 방법적 프로그램 모델 개발, 보급

● On-line과 연계된 Off-line 사업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하천 Network 구축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On-line 상의 공간들은 Off-line 상의 재생산 구조가 없어 지속적인 내실 운영이 힘든 경우가 많음

● 지속적 운영 System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각 하천 수계별로 Off-line 상의 민·관·학 인적자원 및 운영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직접 참여에 의한 지속 운영 시스템 구축

● 각 하천 수계별 환경에 대한 종합적/통합적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On-line 구축

현재 우리나라에는 하나의 권역 하천을 종합적/통합적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On-line 상의 공간이 전무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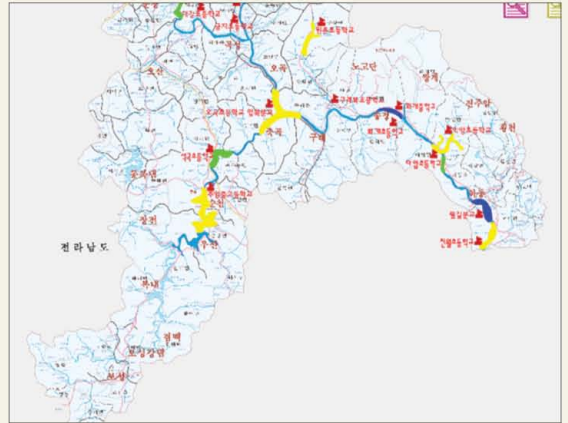
● 환경 관련시설(상하수도 사업소 등)의 환경교육 장소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 구성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환경 관련 시설들이 있으나 시설의 활용 및 프로그램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환경교육의 장 역할 미흡

국내외 참고 사례

● 한국의 강 섬진강 - www.sumjin.net

조선일보사에서 교육부·환경부와 함께 '우리 강을 살립니다!' 캠페인 일환으로 우리나라 5대강에 대해 하천환경교육 Network를 구성하여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하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대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섬진강 지킴이들은 사전교육, 측정/조사 필요장비 지급, 각 지킴이별로 담당 지점에 대해 수질/생태 측정 및 조사 후 홈페이지(www.sumjin.net) 수질오염지도 그리기에 기록한다.



● 하천유역환경교육망(GREEN)

1989년 스태프교수와 미시건 대학의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강물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이용, 물의 사용, 문화적 패턴 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논의한다. GREEN의 수질검사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자매 하천유역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도 정보를 제공, 교환한다.

● 호주의 수질감시(WATERWATCH) 프로그램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질을 조사하고 감시한 후 이를 컴퓨터를 통해 연계하는 따로 또 같이 환경교육의 좋은 예이다.

『한국하천환경교육망』 구축을 제안하며

며칠 전 복원된 청계천에 갔었다. 흐르는 물에 발 한번 담가보고, 천변을 따라 거닐어도 보았다. 물론 비판도 있지만 역사와 전통, 문화 그리고 우리의 삶 중심에서 유구한 세월, 굽이굽이 흘러온 하천이 다시 흐르고 있었다.

인류의 문명과 역사는 하천에서 시작되었고, 하천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하천은 인간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는 동시에 경제 성장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이 되어 주었다. 우리나라 하천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주요 4대강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 속에서 하천이 갖고 있던 다양한 가치들은 훼손되고, 생태계는 파괴되었으며, 수질악화는 점차 심각해졌다.

흐르고 있지만 흐르지 않는, 하천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하천을 살려 나가기 위해 우리 무엇을 해야 하나? 최근 들어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

며, 하천은 다양한 가능성으로 인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변화해야 한다. 21세기 하천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통로가 아니다. 역사와 전통, 문화, 사람과 사람의 이어짐, 물과 물의 이어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어짐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하천의 이어짐을 위해서 『한국하천환경교육망』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하천환경교육망』은 하천이 갖고 있는 시대적 가치와 중요성을 직접 탐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가르치고, 미래세대와 시민들에게 생활 속의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 스스로 활동하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강살리기 운동'으로 발전시킬 때 하천은 자연과 인간의 희망이 담겨있는 공간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환경교육해설지원센터에서 3년째 섬진강 주변학교를 중심으로 '섬진강지킴이(섬진강환경교육망)'을 진행하고 있다. 1년에 몇 차례 그 아이들을 만나면 마음이 맑아진다. 왜일까? 지킴이 아이들의 섬진강의 아름다운 물길을 지키기 위한 작은 활동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 그 동네가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고, 섬진강 전체가 바뀌었다. 그 아이들의 작은 활동으로 섬진강은 생명의, 희망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한국하천환경교육망』을 통해 우리나라 모든 하천이 맑고 깨끗한 물이 안전하게 흐르는 하천, 푸르름이 가득하고 생물들이 다양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천,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이 담긴 하천, 경관적으로 아름다운을 느낄 수 있는 하천이 되길 기대한다. 